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9/21 ~ 2026/09/27]

2026.09.28

[로봇] IFR World Robotics 2026

- 휴머노이드 서밋 종료. 로보티즈는 엔비디아와 차세대 로봇 구동 기술 공개
- KAIST가 만든 라이보 2, 풀 마라톤 완주 성공. 배터리 효율성 극대화 성과
- 테슬라 옵티머스 Gen3 디자인 유출. 양산은 주당 수백대 그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

[방산] 방산 업종 10월 미리보기

- 중동 카타르와 쿠웨이트 천궁 도입 초읽기
- KF-21 양산 1호기 인도. 전투기 양산에 더해 무장 국산화 속도 기대
- 한화디펜스USA, 파인 블러프 아스널에서 약 3조 원 규모의 탄약 생산 거점 구축 사업 본격화

[조선] 조선 3사 임단협 현황

- 삼성중공업 첫 임단협 타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노사 갈등 지속
-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야드에서 사상 처음으로 VLGC 건조에 진입
- 머스크가 중국에 컨테이너선 26척 대규모 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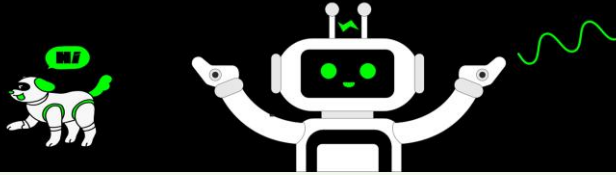
[항공] 이란 항공 제재

- 미국 해운 이어 항공 분야까지 對이란 제재 확대. 이라크, 예외 인정 요구
- 치솟은 유류할증료 동남아 직격, 일본-중국 항공 여객은 20%대 증가
- 제주항공 3,400억 끌어모았다, 재무구조 개선-기단 현대화 속도

[해운] VLCC 초강세

- 사우디 원유 우회에 오만 해상환적 포화, 유조선 운임 사상 최고
- 트럼프 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제안 거절, 폭격 재개 가능성
- 8주 연속 컨테이너 운임 상승 멈췄다, 10월 이후부터 안정화할 듯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IFR WORLD ROBOTICS 2026

IFR이 World Robotics 2026을 발표. 산업용 로봇 시장이 다시 성장 세로 전환된 점 긍정적. 그리고 IFR이 공식적으로 처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를 집계. 2025년 휴머노이드 시장은 약 8천대로 추산.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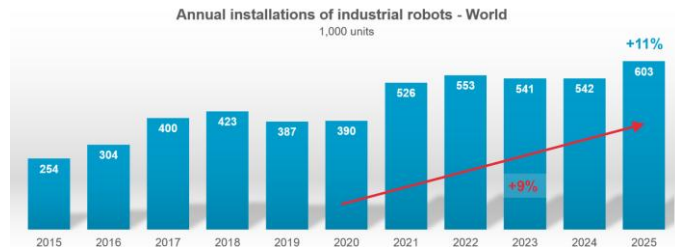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42)

[IFR World Robotics 2026]

- IFR World Robotics 2026 발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산업용 로봇 시장도 지속 성장 중. IFR에서 처음으로 휴머노이드 시장도 공식 집계. 다만, 현재 휴머노이드 시장은 여전히 파일럿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이며, 실제 대규모 배치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평가한 점 주목.
- ① 글로벌 산업용 로봇 설치 60.3만대(+11%yoy)로 사상 최고 갱신, 글로벌 가동 중 산업용 로봇도 500만대를 처음 돌파. 7년 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 ② 중국 수요가 35.4만대로 글로벌 전체의 59%를 차지, 중국산 로봇 점유율도 55%를 기록하며 성장, ③ 산업용 로봇 수요의 중심이 자동차에서 일반 산업으로 이동. 일반 산업용 수요가 지난 10년간 5배 증가, 협동로봇 비중도 산업용 로봇의 약 11%까지 올라옴, ④ 2029년 글로벌 설치 80.6만대 전망(2027~2029 CAGR 7%), ⑤ 2025년 휴머노이드 약 7,000대 판매 집계, 휴머노이드 제조사 174개 중 중국 89개 차지.

Key Chart: 연간 신규 산업용 로봇 설치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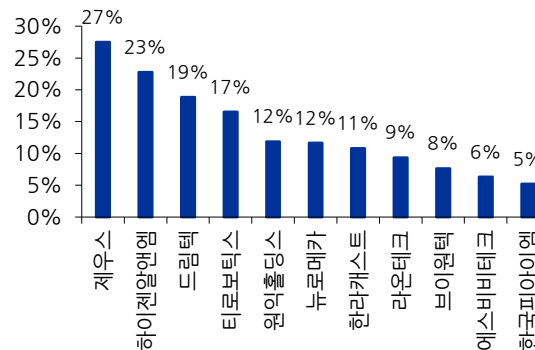


자료: IFR,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W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9/21~09/27)

[전통 로봇]

- 코웨이, 1.6kg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내달 출시

[휴머노이드]

- 로보티즈, 휴머노이드에 비전 센서 채택

[부품/SW/기타]

- LG전자, 엔비디아와 '로봇 공동개발 거점' 만든다
- 소프트뱅크, 현대차그룹과 RAI연구소 인수에 합의
- 현대차그룹, '모베드' 판매 개시
- 보스턴다이나믹스, RMAC 개소
- 현대차그룹 "美 로봇 학습기지 내년 10배 확장"
- 삼성 레인보우로보틱스, 美 대형 SI와 맞손
- 엔비디아로보틱스, 차세대 로봇 구동 기술 공개
- KAIST '라이보2' 세계 최초 로봇 폴코스 마라톤 완주
- 삼현, 북미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수주

[글로벌]

- 바클레이스 "휴머노이드 대량 배치, 2035년은 돼야"
- 테슬라 애플 옵티머스 Gen 3 디자인 유출 정황
-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난항. 주당 수백대 그쳐
- 코그넥스, 인텔서 분사한 리얼센스 인수
- 오픈AI, 로봇 인력 채용 공고 4개월 만에 11개→25개
- 보스턴다이나믹스, 美 전역군인 채용 확대
- 보스턴다이나믹스 프리IPO 추진
- 애질리티 로보틱스, 바퀴형 휴머노이드 출시 검토
- GPT-6, 물리적 명령에 따라 치명적 행위 실행
-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IPO 심사 강화



Weekly Keyword

조선 3사 임단협 현황

조선 3사가 임단협 진행 중. 삼성중공업은 추석 전 타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아직 진행 중. 일부 부분 파업 등 조업 차질도 발생. 추석 연휴 이후 후속 협상 결과에 주목 필요.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70)

[조선 3사 임단협 현황]

- 삼성중공업이 조선 3사 중 처음 임단협을 마무리(기본급 +5.2%·격려금 700만원·OPI 재원 영업이익 10%). 반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협상 지속 중. 노사 이견에 따라 일부 부분 파업 진행 중(HD현대중공업: 4~7시간 부분파업, 한화오션: 골리앗크레인 4대 가동 중단).
- 조선 업종 내 임단협 관련 노이즈 계속. 일부 조선사 조업 차질에 따른 일부 실적 영향 우려도 확대. 추석 연휴 이후 협상 재개 예정임에 따라, 후속 협의 결과에 주목 필요.

Key Chart: 조선 3사 임단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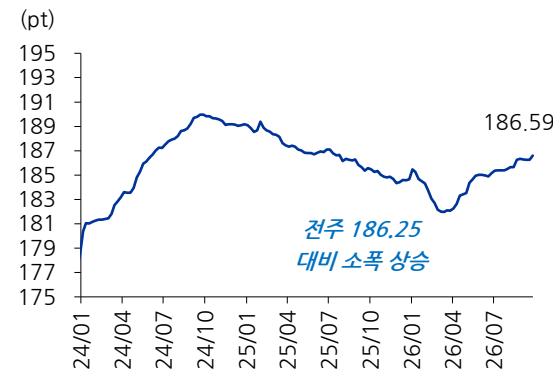
구분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현재 상태	타결	교섭 결렬	24 차 교섭 실패
기본급	+13.18 만원 / +5.2%	회사 +11 만원 vs 노조 +14.96 만원	회사 +12.37 만원 vs 노조 +14.96 만원
일시금	700 만원	1,000 만원 + 200% 등	650 만원 + 복지포인트 100 만원
핵심 쟁점	OPI 영업이익 10%	영업익 30% 성과공유 + 고정급 확대	성과급 지급기준 명문화
파업	종료/타결	4~7 시간 부분파업	골리앗 크레인 4 대 중단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9/21~09/27)

[상선/해양]

- HD현대중공업 Ro-Ro선 \$121.5m 2척 수주
- HD현대중공업, 미포 야드 첫 초대형가스선
- 한화오션, FLNG 핵심 기자재 국산화 실증 추진
- 제이오션중공업, 탱커 6척 수주

[특수선]

- 에스토니아 "함정 수주, 한화HD현대 가능성 높아"
- 태국 해군, 한화오션 호위함 "경쟁사 5곳 기준 미달"
- 한화오션, 태국에 원해경비함무인수상정 설계 제공
-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군함 등 조선 협력 논의"

[기타]

- 삼성중공업, 임금협상 첫 타결. 기본급 5.2% 인상
- 한화오션 노조 골리앗크레인 멈춰
- HD현대중, 카사블랑카 조선소 확보전서 강력한 우위

[글로벌]

- Maersk, 중국에 컨테이너선 26척 발주
- MHI 가스터빈 수요 "26년도 전년 상회하는 기세"



Weekly Keyword

이란 항공 제재

미국이 이란 항공사에 대한 제재를 제3국 기업으로 확대하며 경제적 압박 수위를 상향. 중동 지역 운항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인천공항 환승 수요 강세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90)

[이란 항공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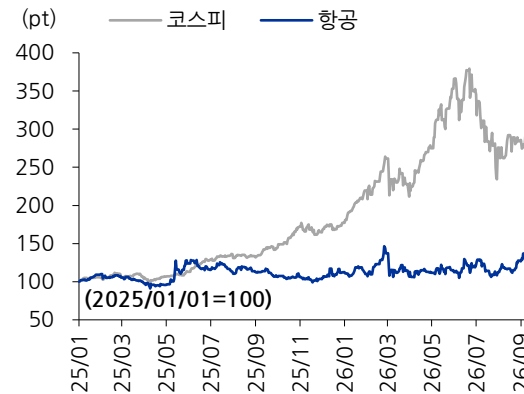
- 9/23 미국은 이란 항공사에 급유·착륙, 항공권 판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 제재에 돌입. 미국은 9/8 이란 항공사 27 곳을 신규 제재하고, 이란 항공사의 운항을 지원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 로이터에 따르면 제재 시행 이후 바그다드·무스카트 행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이란 국제선 운항 차질도 확대 중.
- 중동 공항의 환승 기능이 약화되며 인천공항의 환승 수요는 지속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 미국-이란 전쟁 이후 중동 주요 허브 공항의 운항 차질로 3~7월 인천공항 환승객은 전년비 +30%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 8월 환승객은 약 86만명(+19.4%yoy)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 중동 지역 운항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인천공항의 환승 수요 강세도 지속될 전망.

Key Chart: 미국 對이란 항공 제재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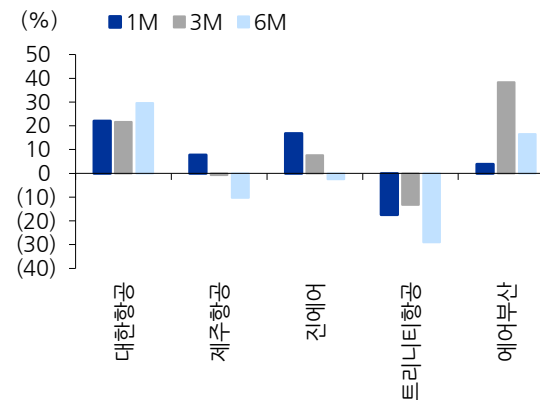
구분	시점	내용
제재 개시	8/24	미국, 항공해운 등 이란 5개 핵심 산업 제재
항공사 제재	9/8	이란 민간 항공사 27개 등 36개 대상 제재 확대
운항 차질	9/14	마한항공, 튀르키예·오만 노선 운항 중단
제3자 제재	9/23	이란 항공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제재 확대
운항 중단 확대	9/25	UAE-아제르바이잔-조지아 등 이란 항공편 운항 중단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9/21~09/27)

[여객/화물]

- 치솟은 유류할증료 동남아 직격, 일본-중국 여객은 20%대↑
- 日 노선까지 매진인데, 항공사 치솟는 기름값에 속앓이
- 저비용 항공사 변신 중, 덩치 키우고 장거리·고급화로 승부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세계 최고 항공사 10위, 이코노미 좌석은 1위
-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코앞인데, 국내선 증편은 '0'
- 대한항공 마일리지 빚 3조원 돌파, 보너스 비행은 되레 줄어
- 통합 진에어 출범 초읽기, 제주·트리니티·이스타와 4파전
- 에어부산, 본사 부산 유치 요구에 한진그룹 고심
- 이스타항공 24번째 항공기 도입, 평균 기령 7년대
- 제주항공 3,400억 끌어모았다, 재무구조 개선·기단 현대화
- 제주항공 내달 15일부터 초과수화물 요금 최대 25% 인상
- 제주항공 부산~구이린 주 4회 취항, 부산발 수요 공략
- 에어프레미아, 글로벌 장거리 LCC TOP 10 진입

[기타]

- 인천공항 추석 연휴 이용객 114만명, 27일 가장 혼잡
- 수하물 또 못 실은 인천공항 2터미널, 1터미널 검색요원 지원

[글로벌]

- 美 북동부 강력한 가을폭풍, 항공편 수백편 결항
- 이란 최고지도자 고문, 미 항공 제재 동참국 향해 보복 시사
- 이라크, 미국에 대이란 항공 제재 예외 인정 요구



Weekly Keyword

VLCC 초강세

중동 원유 수출은 회복 중이나 호르무즈 통항 제한과 오만·UAE 연안 STS 확대가 VLCC 가용 선박을 제약. 이에 미국 걸프-아시아 VLCC 운송비와 TD3C-TCE 모두 역사적 고점 수준 지속.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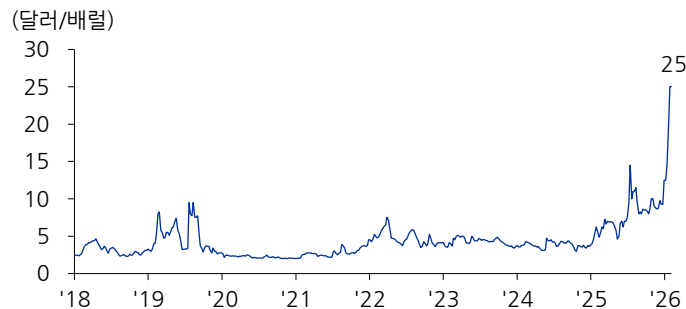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3)

[VLCC 초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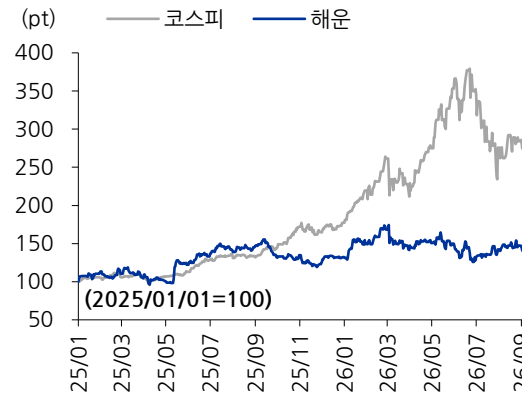
- 9/25 미국 걸프-아시아 VLCC 운송비는 약 25달러/배럴, TD3C-TCE 역시 약 125만달러/일로 역사적 고점 수준의 강세를 지속. 최근 중동 지역 원유 수출은 약 1,500만b/d 수준으로 회복되며 전쟁 이전 대비 감소폭은 300만b/d까지 축소된 상황.
- 원유 물동량 회복에도 가용 선박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 AIS상 확인 가능한 호르무즈 통항은 전쟁 이전 대비 약 90% 낮은 수준이나, 호르무즈를 통과한 원유의 오만·UAE 연안 STS 환적이 확대되는 중. 오만 인근 VLCC 대기 척수도 120척 수준까지 증가하며 선박 회전율이 저하되고 가용 선박이 제한되는 모습. 향후 안부향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더라도, 호르무즈 통항 제한과 STS 병목이 해소되지 않는 한 VLCC 운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

Key Chart: VLCC 운송비(미국 걸프-중국 닝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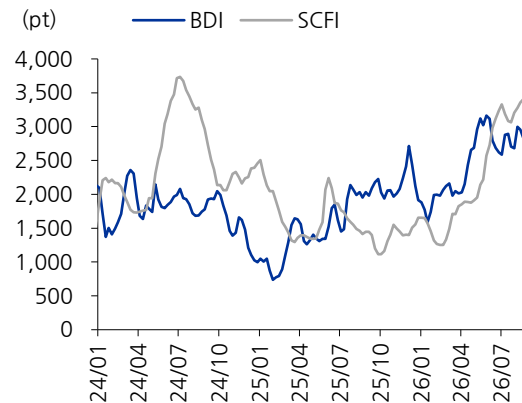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9/21~09/27)

[벌크선]

- HMM 29조 전략, 벌크는 신조선 8척에 25년 계약 확보
- 파나마보다 짧다, 캐나다 광석 북서항로 건너 울산항에

[탱커/가스선]

- 오랜만에 원유가 물린다, 해상환적 포화에 유조선 확보 경쟁
- KSS해운, 2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
- 대한해운 LNG선 영업익 벌크 추월, 수익 중심 이동
- 흥아해운, 케미컬탱커 3척 신조 관련 1,856억 채무보증

[컨테이너선]

- 호르무즈 컨선 94% 급감, 원유는 통과해도 화물은 마비
- 8주 연속 해운 운임 상승 멈췄다, 10월 이후 안정화할 듯
- 10조 쓴 HMM 현대무백스 지분도 매각, 실탄 확보 본격화
- Maersk, 18,600TEU급 컨테이너선 26척 신조 발주

[기타]

-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EU 피해 900억 유로에 달해
- IG 회원 클럽, 내년 보험료 최대 7.5% 인상 예상
- 지난해 전세계 해상보험료 426억달러로 5.5% 증가
- 연이은 선박 해킹 사고에, K해운 사이버 방벽 쌓는다
- 韓 제안 선상 탄소포집 안전지침, IMO 국제표준 기본안 채택
- 해운으로 번 돈 빅테크로, 안젤리쿠시스 엔비디아 담았다
- 日 도쿄도, 도쿄항 오이 컨테이너 부두 시설 대폭 확충
- 美 LA 항만, 8월 사이버 공격 약 1억 2천만건 차단